

THE DREAM FOR DESIGN LIFE
CSLV

CASA LIVING
까사리빙



5인의 디렉터가 말하는 '우리만의, 우리다운' 브랜딩

SMALL BRAND, BIG BRANDING

까사리빙 X KOSID 선정
안목을 높이는 건축 투어 8

테이블에 수놓은 낭만
빌레로이앤보흐
크리스마스 에디션

빅토리아 시대의 마구간을 개조한
건축가 샐리 매커러스의 런던 하우스

런던 한복판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빅토리아 시대의 마구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가 떨어진 토끼 굴처럼 놀랄고도 비밀스러운 발견이었다. 그렇게 과거를 잊는 시간 여행이자 초현실주의적 개념을 담아 다시 태어난 셀리 매커러스의 집에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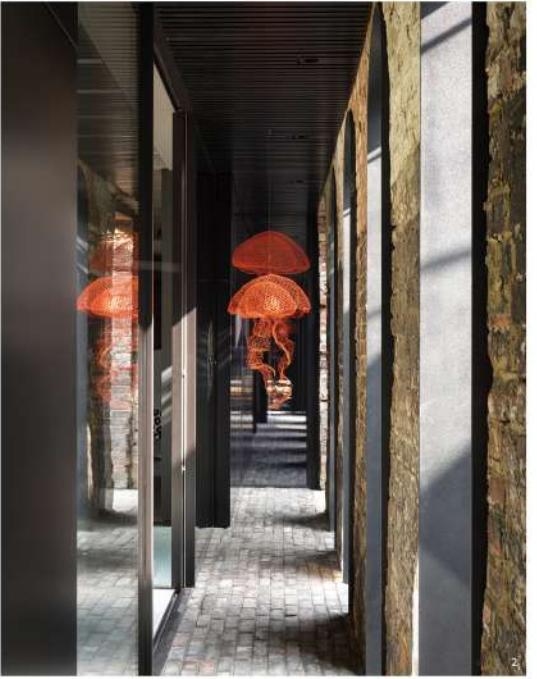
에디터 유승주
포토그래퍼 스티븐 줄리아드(Stephen Jullard)
문행초 제작 이안 필립스(Ian Phillips)

건축가 셀리 매커러스의 런던 하우스 빅토리아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탈경계적 공간



1 스튜디오와 집 사이에 마련한 비밀스러운 안뜰은 전던 한복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분주한 도시의 소음을 조용해주며, 날씨가 좋을 때 막intosh 태이을 모여 식사를 함께 하는 드넓은 장소다. 말발굽에 의해 달은 과거의 벽들을 당시 벽과 바닥에 적용해 19세기 당시의 모습을 이어가고자 했으며, 아케이드의 아치에는 검은색 주철 기둥을 추가했다. 세로 옮긴 2층은 통유리로 마감해 헛살 좋은 날씨는 온실처럼 빛에 반짝인다. 2 벽을 둘뿐 아니라 천장 시가리를 구성해 인더스트리얼 무드를 강조한 배경 아래 피에르 폴랭(Pierre Paulin)의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의자들이 벽에 그림을 걸듯, 혹은 천정에 프레스코화를 그려 달듯, 리본은 바닥과 그림이다.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리고 위에 앉아니 누울 수도 있다.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든 관습적으로 존재하도록 국한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비비에 일 수트(Vivaldi Sud)의 대나무로 만든 아자수 거울(Bamboo Palm Tree Mirrored Screen)은 피리 베루사강에서, 빙티지 할리우드 리랜시 스타일의 의자는 마이애미에서 공수했다.





1 영국 건축가 샐리 맥커러스(Sally Mackereth)는 지난 25년간 건축과 디자인
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둘러해왔다. 유
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프로젝트마다 서로
온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이제까지 디자수가 해온 방식을 답습하는 건 철
적으로 맞지 않는다. 집은 내면의 중심을 깨우고, 위함을 반영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편안하고 유연한 공간이며 한마디로 간조한다. 2 아케이드를 형성
하기 위해 오래된 빅토리아 시대의 벽돌을 다시 쓰고, 같은색 강철을 몇년 이치
를 조성했으며, 실내외의 경계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있다. 빛이 건물로 유입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대형 아침 아케이드에서 일어나는 빛과 그림자, 밤과 어
두움의 대비가 매우 근사하다. 건고한 소재와는 대조적으로 이물건이나 디자이나
베네베티 모리 우발디니(Benedetta Mori Ubaldini)의 오렌지색 해파리 오브
제는 바람 따라 공간을 가볍게 부유한다.

집의 구조가 독특한데, 이런 마구간을 개조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건물을 방문했을 때 어두운 분위기 속 건조 디미에 낡은 코블
스톤이 깔린 바닥까지 영락같이 벼려진 시골의 찻간을 연상케 했다.
'어떻게 런던 한복판에 이런 곳이?'라는 놀라움과 함께 동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시크릿 가든을 발견한 것과 같은 묘한 빼감을 느꼈다.
고지도를 보니 1870년대 당시 미들랜드 철도(Midland Railways)
의 마구간 수백 곳이 이 지역에 위치했었다고 한다. 선로와 평행하
게 흐르는 운하를 통해 농산물을 이용하는 데 말이 중요한 수단이었
다고. 현재 대부분은 사라졌고 땅 두 건물만 남았는데, 각각 나의 집
과 건축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재개발이 한창인 런던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플랫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다. 또 리셉션룸, 거실을
지나 주방, 그 너머 정원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위치하는 보편적인 영
국 주택의 구조와는 완벽히 다른 평면도 점도 미처 몰랐다. 개조하
는 데 다행히 법적인 제한이 없었기에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했다. 건
축기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보물 같은 장소를 찾아 과거와 현재의 시
간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은 충이로웠고,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
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또 지웠는지?

곳곳에 세워진 검은색 철제 기둥, 말발굽에 의해 달은 바닥의 돌, 말
을 끌어온 흔적 같은 이곳만이 지난 고유의 캐릭터가 차지할 원했
다. 같은 액티브에서 기존 건물과 동일한 조직 방식의 하인인 임글리시
기든 본드(English Garden Bond)를 선택했다. 벽돌공에게 과거
의 '벽돌을 재사용하라', 남은 벽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박한 결과들을 내밀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그 작업이 너무 어려
웠다고 하더라. 땅을 파다 보면 밑에 짐수레를 고는 데 빤한 가죽과
같은 오래된 물건을 발굴하고 했는데, 여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
나 있다. 작업하는 동안 일부들이 어디선가 자꾸 말의 울음소리를
난다면서 용기를 본 것처럼 겁에 질렸었다. 나는 궁금해서 직접 현
장을 찾았는데, 티타임이라 조명한 현장에서 말과 소의 소리가 들
게 되었다.'이 무슨 소리지?' 하며 도심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지 처음엔 이해를 못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벽 너머에 윌립
수의과 대학(Royal Veterinary College)이 있었다. 이처럼 상상
도 못한 놀라운 발견은 나에게 혼혈주의적 영감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의 도로명이 과거에는 코끼리 행렬(Elephant Row)이
있는데, 이 또한 지역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기에 나는 같은색
다면 코끼리를 그리 넣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마구간
문 너머에 정말 코끼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도록 상상력을 자극하
는 것이 제미있다. 이렇게 옮드 엔 뉴 사이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
하며 공간에서의 모든 경험과 내러티브에 집중하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추가해나갔다.



넓은 마구간이 지닌 본래의 커다란 불룸을 구획할 때 중점을 둔 것은?

커다란 말이 살던 뜬, 소위 등을 스케일로 완전히 색다른 구조의 공
간을 다루는 일은건축가로서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생각해보라, 당
신이 턱 트인 피드 소스나 성당과 같은 개방된 공간이 거주한다고 하
면 그 거대한 불룸이 당신을 의사시켜버릴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의
웃음을으로 가득 찬 넓고 친밀한 공간과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
고 프리미엄한 공간도 필요한 법이다. 나와 가족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구성원에 맞게 공간을 구분하되, 초현실적인 면
을 부여하고 싶었다. 나에게 (이상한 나라의 열리스)는 쓴 영국의 작
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세계는 매우 강력했다. 시느그래
피드 연출하면서 공간에 비해 문을 크게 하거나, 문에 비해 큰 손잡
이를 달고, 침실 옆 좁은 계단을 오르면 높은 층고와 유타로 연결되
게 하는 등 모든 설계에 나의 철학적인 의도를 담았다. 특히 집의 모든
문은 벽들이나 목재의 경계에 맞춰 제작해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일례로 목도의 끝에서 벽을 일면 비밀스럽게 침실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인 런던의 집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집에 방문한 이들이
길을 잊고 방향을 알아 찾다. 규모의 차이, 재료의 차이, 예술적
뜻한 요소를 활용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우
선시했다.

평생 산식 건물보다는 오래되고 유서 깊은 공간을 더 선호하는지?

그저 세련된 모습의 공간을 선호하지 않는다. 가족의 공간을 다른 용
도로 변모시키고 새롭게 걸들이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오래된 연
극의 대본이 지난 고유의 이야기를 존중하되, 나만의 방식으로 이를
다시 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벽과 바닥으로 둘러싸인 공간
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동시에 유연한
사고로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연결하는 새 이야기를 담는 것이
건축가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집 안에 아케이드를 만든 이유도 궁금하다.

고벽돌에 검은색 강철 아치를 설치해 아케이드를 형성했다. 우선 빛
을 실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미니멀한 형식으로 윤리를
추구해 단암 효과도 높았다. 이와 더불어 거실에 앉아 외부를 바라
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구간에 앉아 있는데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실내외의 경계가 모호한 중첩된 공간을 의도했다. 한편
보편적인 런던의 주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20m 길이의 긴 아케
이드에 빛이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정말 아름
다는데, 그림자 설계까지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집이란?

집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저 편안히 쉬는 곳으로서 오
롯이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편안함을
최우선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나에
게 집은 그저 유연하고 기능적인 휴식처다. 가족과 영화를 보고, 차
를 마시면서 그것을 비롯해 지인들을 초대해 함께 음악을 막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전부라
생각한다. 또 수년 전 한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 시칠
리아 작업까지 베쁘게 지내면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이것저것 수
집(하)보다보니, 집은 내 호기심과 추억을 보관하는 상자와도 같아졌다.

3 조제프 알베르스 재단(Josef Albers Foundation)과의 협업으로 한정판 애매에
스 실크 스카프를 액자처럼 깨비에 대한 모아주(Hommage au Carré)를 출시
두고 우드 캐비닛과 화병을 균형감 있게 배치했다.

CSLV
CASA LIVING



시멘트를 바른 거실과 원래의 미구간에서 가져온 오래된 벽돌을 활용한 아케이드는 각기 다른 바닥 마감으로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는 이어가되 공간을 자연스레 구분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태생의 이코 피리시 (Eco Parisi)가 고안한 더디크의 실크로 암홀스 터리한 미드센추리 소파를 두었다. 베르니 펜돈이 디자인한 스皮겔(Spiegel) 벽 조명 한 쌍과 무리노 유리 소재의 테이블 램프는 모두 1960년대 제품. 복도 곳에서는 톰마소 바르비(Tomaso Barbi)의 활동 벤치지 차이언트 리프 블로이 캠프가 시선을 이끈다. 소중한 가족인 쿠사마 (Kusama)와 라일리(Riley)도 공간을 더욱 활기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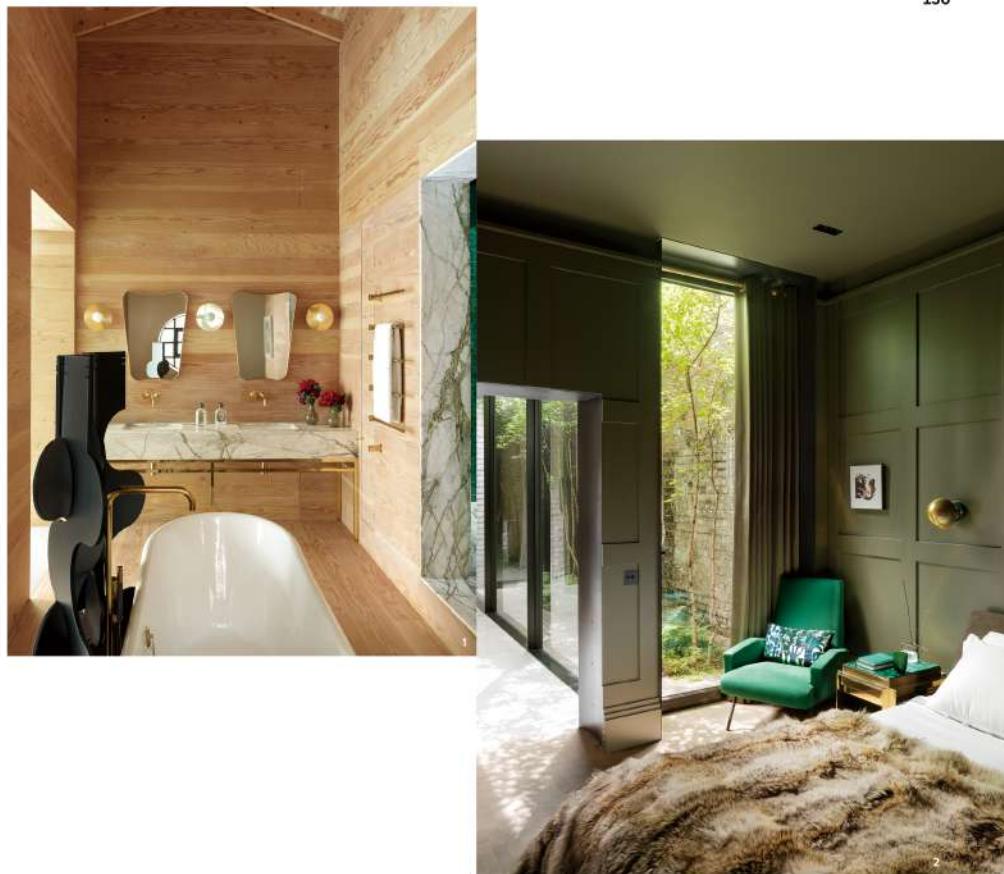


고요하면서 두개감 있게 자연의 신비로운 풍성을 전하는 아일랜드 카친 너머 다이닝 공간의 벽에 에탈리 페인트를 칠하고 그 앞에는 벨기에의 18세기 초복을 그려 낸은 테미스트리(Verdure Tapestry)를 걸었다. “질감도 좋지만 마치 대형 침문처럼 다시 한번 멋진 풍경 속으로 시선을 이끄는 힘이 좋다. 처음 타피스트리를 걸었을 때 연연티크한 이미지를 너무 부각하는 것 같아 양설였다. 하지만 니카 주판크(Nika Zupanc)가 디자인한 큐부(Qeeboo)의 체리 맨먼트 조명을 설치하면서 현대적인 무드와의 균형을 맞췄다.” 화려한 고가의 골동품이 아닌 유쾌한 캐리를 선택한 그녀의 위트가 돋보인다.



1 소케이스처침 구민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책상과 포르니세리의 코로만델(Coromandel) 체어를 놓은 스터디룸은 요즘 베서 학위를 준비하는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 여전히 과거의 소재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맑은 티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흔적을 유지하며 득특하고 윤임적인 경향을 누릴 수 있다. 2 샘리는 여행을 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물건을 수집하는 걸 즐긴다. 그녀는 무조건 고기질 오브제만을 선택하며 허상을 부리는 타입은 아니다. 물론 어떤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베트시장에서 단돈 몇 원에 구입하기도 한다. 과거의 추억이 깃든 수집품에 애착이 많다. 그렇게 같은 내 호기심과 추억을 보관하는 남자친도 같다"고 말한다.

3 민더스트리얼한 느낌을 더하도록 광택을 낸 콘크리트 바닥과 벽돌이 잘 어울린다. 자세히 보면 벽돌의 색과 질감이 다른데, 특히 선반 위에는 내구성이 좋은 면지나어밀 벽돌 스테퍼드셔 블루(Staffordshire Blue)를 적용했다. 선반은 이전 마구간의 나무 사마리를 재활용했다. 해골과 불꽃이 새겨진 빈티지 자수 작품은 무진에서 가져왔다.



1 전통적으로 목재로 깊은 육실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패턴화를 이루며, 봉니무 신장을 연상시키는데, 일본의 문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원래는 단일층이었던 건물을 2층으로 높인 것으로,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육실 구조다. 흡은 계단을 지나 높은 층고의 공간을 발전하는 예상치 못한 특별함을 기대했다. 높은 층고는 금·검들의 물결과 관련되고 궁전에서 물룡이란 환자리를 미리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2)케이드의 칠, 하얀 액을 베여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면 침실의 모습이 드러난다. 컬러를 적극 활용하는 그녀답게 짙은 녹색으로 심그럽게 적용된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이탈리아 간축가 카를로 스카리파(Carlo Scarpa)에게 명강을 받은 침실용 칙자는 빛나는 굽드와 공작석(Malachite)으로 상판을 아감해 글레이어스화다. 3)침실에 반드시 전망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강을 지붕에 한 행장을 뜻하는 오큘리스(Oculus)를 만들고, 그 아래 작은 창문을 개쳤다. 자연을 봉내는 팔들이 있는 건 매우 좋으니다. 덕분에 침실도 더 활기 떠는 것 같다. 오큘리스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특별한데, 특히 눈이 나를 때나 보름달을 바라볼 때 정말 현상적으로 이곳이 현대의 도심이라는 사실을 짐시나워 있게 한다. 시적이면서 동시에 가능적인데, 바로 옆 드레스룸에서 의상을 선택하기 전 날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다."

